

14 사진기획



흰뺨검둥오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리입니다. 작년 6월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분수대에서 흰뺨검둥오리가 이틀동안 열 마리의 아기들을 데리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리는 물이 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모두 학내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종종 이들을 만날 수 있고, 봄부터 여름까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인근에 중랑천이, 국제캠퍼스는 인근에 기흥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오리들이 종종 캠퍼스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우리학교에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새 덕후’ 권순호(환경조경디자인학 2019) 씨는 새 관련 책들과 모자, 일본 학생에게 받은 뱀지 등 새グッズ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지면 수록 사진은 모두 권순호 씨가 촬영한 것이다)

서나는 기자 merlo@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는 부지가 넓고 오른쪽으로 두 개의 산을 끼고 있어 자연 친화적입니다. 특히 큰 호수를 끼고 있어 많은 조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색의 광장에는 종종 오리가족이 산책을 나오고, 고요한 노천극장과 멀티미디어교육관으로 넘어가는 산길에서는 처음 보는 새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류를 연구하고 기록화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학교 자연사박물관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자칭·타칭 ‘새 덕후’ 권순호(환경조경디자인학 2019) 씨입니다. 권 씨가 바라보는 국제캠의 조류 생태계는 어떤지 그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 씨가 서포터즈를 맡고있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자연사박물관에서 국제캠 조류 연구를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준히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더 깊이 있어요.” 권 씨는 대학에서도 ‘깊이 있는’ 관찰을 하고자 했습니다.

새를 찍으며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간 권 씨는 나무 위 까치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까치둥지에는 까치가 아니라 새호리가기 있었습니다. “까치는 썼던 둥지를 다시는 안 쓰거든요. 그러면 새호리거나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가 그걸 써요. 그런데 이 맹금류를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가 정말 적어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하는 새호리기를 직접 봤던 때를 떠올리며 권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맹금류가 캠퍼스에서 번식하고 있으면 학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조류에 관심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니까요.”

권 씨의 올해 목표는 버드피더(birdfeeder)를 우리학교에 설치해 서울캠과 국제캠을 하나로 잇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도 있는 버드피더는 새 모이통과 카메라를 설치해 그곳에 드나드는 새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국제캠에 하나, 서울캠에 하나 설치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 로비에 국제캠 화면을 틀어 지금 국제캠에는 이런 새가 있다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새를 통해 캠퍼스를 이어주고 싶은 권 씨가 국제캠에서 직접 찍은 나 학교처럼 내 생활 환경에서 꾸



오색딱다구리 녹지가 많은 경희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도 다양한 딱다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오색딱다구리를 소개합니다. 경희대에서 사계절 내내 쉽게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딱다구리는 숲 속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해를 입은 나무를 쪼아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딱다구리가 살고 있는 숲은 그 환경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빨간 무늬가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입니다. 캠퍼스 부지 가장자리나 헐떡고개 등 나무들로 울창한 곳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박새 캠퍼스에서 사계절 내내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건물이나 가로등 같은 인공구조물 틈새에서도 번식하고, 사람이 설치한 동자삼자에서도 번식하는 등 우리나라 도시에 가장 잘 적응한 새 중 하나입니다. 작은 새를 보면 참새라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지만, 깃털 색이 전체적으로 갈색이 주류인 참새와 달리 박새는 머리와 날개에 검은 무늬가 있고, 뺨과 배는 희고, 등과 꼬리에 옅은 하늘색이 감돕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월,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도 캠퍼스에는 사람 한 명 없어 낯설었습니다. 대신 박새들이 나무마다 돌아다니며 벚꽃의 꿀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호리기 새호리이라는 이름은 작은 새들을 홀려서 사냥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사냥할 때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한란하게 날아다니는 습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말 멋지게 비행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캠퍼스 창공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더워도 한참을 땀이 차다보면 합니다. 2년 전 여름, 국제캠퍼스에서 오래된 까치 둥지를 재발굴하여 번식하는 모습도 관찰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Ⅲ급에 해당하는 보호종인 관계로 자주 발견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직박구리 직박구리는 컴퓨터 바탕화면 새폴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목청이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그 주인공은 높은 확률로 직박구리,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이고, 경희대 캠퍼스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빨갛게 익는 낙상홍, 팔배나무, 산딸나무의 열매를 즐겨먹습니다. 작년 가을에 산딸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직박구리를 보고 있다가 두시간이 넘는 공강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상모술새 정수리에 노란 무늬가 있어 상모술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겨울철새입니다. 상모술새는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등 상록 침엽수가 우거진 곳을 좋아합니다.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지만, 겁이 많아서 좀처럼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상모술새를 찾기 위해서 높은 소나무를 한참 올라다보느라 목이 빠근한 기억이 나네요.